

즐거워라

啐啄

김동화

미아리아



인간 이후
31.1 X 23.7cm 종이 위에 연필, 색연필 1983

는 점에 독특한 가치가 있다. 작가의 발상이나 의식의 흐름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1983년 작인 ‘인간 이후’를 보자. 인류가 절멸한 이후 새로이 출현한, 외눈과 이빨만 있는 무뇌충(無腦蟲) 신인류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 악마성과 동물적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수많은 눈에서 나타나는 섬세한 표정과 미묘한 뉘앙스의 묘사로 인간 내면의 음험함, 사악함, 기만성 등을 투영하고 있다. 또한 이빨의 선으로 드러나는 날카로운 울부짖음에는 인간의 수성(獸性), 이기적 성향, 존재의 절망감 등이 잘 표현되고 있다. 인간이 외부에서 극도의 사악함 – 이를테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연쇄살인범의 경우처럼 – 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투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고 분노하거나 경악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습이 밖에 있는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악성을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외부 대상을 통해 발견하는 것뿐이다. 자신의 악을 직접적으로는 징벌할 수 없기에 – 자기 보존의 욕구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파괴할 수 없다 –, 내면의 악의 이미지(bad self image)를 무의식적 방어기제를 통해 외부로 투사하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인 분노 역시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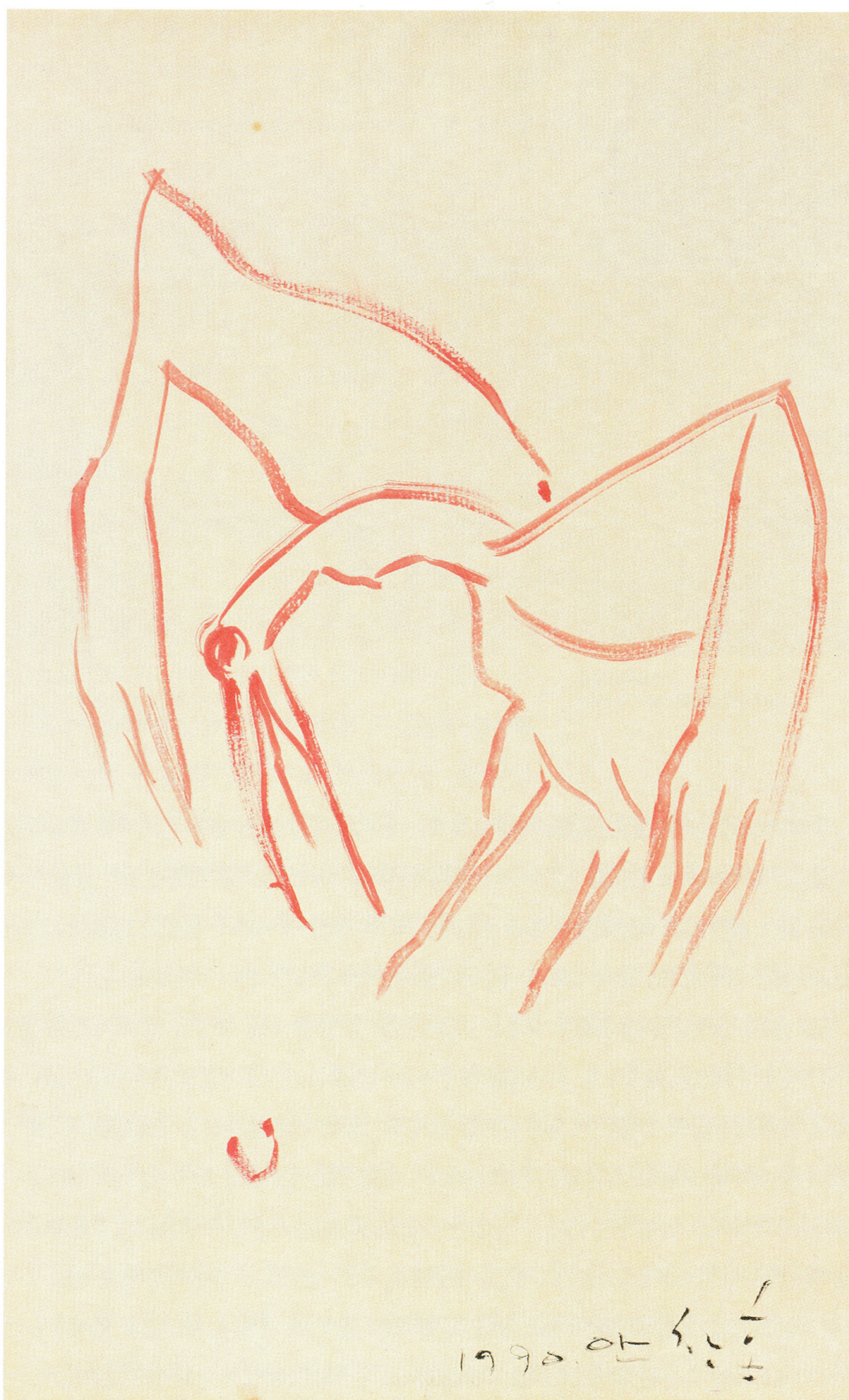
안창홍의 얼굴
28 X 35.5cm 종이 위에 먹 1990

로 표출하면서, 대상 - 사실은 대상 내부에 있는 자신의 표상 - 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작업은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의 양상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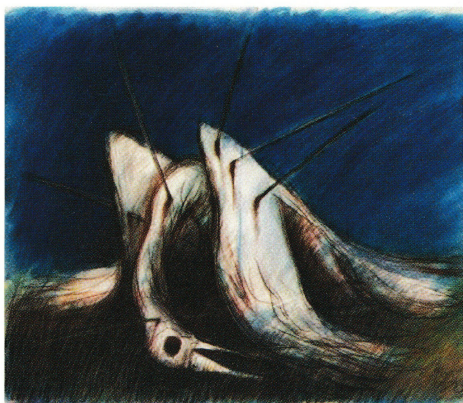
그의 초기 작업들은 대개 내적 분노를 그로테스크(grotesque)하게 표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화면이 주는 기괴하고 오싹한 느낌을 통해 작가가 가진 감성의 심도와 충위를 인식시키려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의 작업들에서는 어찌 보면 푹푹 멎어붙은 처절한 오기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화가가 작업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근원적인 저력 같기도 하다.

그의 '가족사진' 또는 '인간 이후' 연작에서 나타나는 훼손되고 변형된 인간 이미지의 의미는 구조적으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비참한 현실과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본원적 고통의 까발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가는 이러한 비극적 세계와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을 표현함으로써 반대로 이 비극으로부터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의 한 끝을 보여주고 있다. 위악(偽惡 or 爲惡)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 드리워진 내밀한 진심을 보여주는 작가들이 더러 있는데, 안창홍의 경우도 이러한 예에 합당한 경우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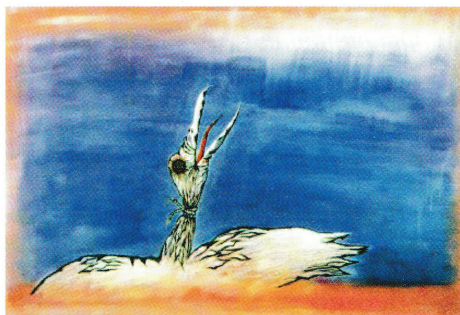
자신의 자화상인 '안창홍의 얼굴'은 1990년 1월 22일에 그린 것이다. 이 시기는 작가가 부산에서 양평으로 옮겨가서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이다. 이 작품에는 그런 낯설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진 작가의 절연한 분위기와 표정이 잘 살아있다. 안광(眼光)이 불을 뿜는 듯 빛나고 사람을 쏘아보는 형형한 느낌이 인상적인 이 그림은 마치 윤공재(恭齋 尹斗緒)의 자화상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강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약간 일그러뜨린 얼굴과 악에 받친 은근한 표정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야수적 근성과 생존의 본능이 감지되기도 한다. 그의 드로잉 중에서는 거의 특의작이라 할 만한 것으로, 작가라도 어찌다가 한 점 정도나 그릴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의 자화상 중에서 - 내게 알고 있는 한 - 자신의 내면 묘사와 심리적 기술(記述)의 충실도 측면에 있어서는 단연 으뜸이라 할 만한 작



새
21.6 X 35.6cm 종이 위에 수채 1980년대 중반



화살 맞은 새
109.5 X 79.5cm 종이 위에 색연필, 드로잉 잉크 1986



외치고 싶은 새
109.5 X 79.5cm 종이 위에 수채, 드로잉 잉크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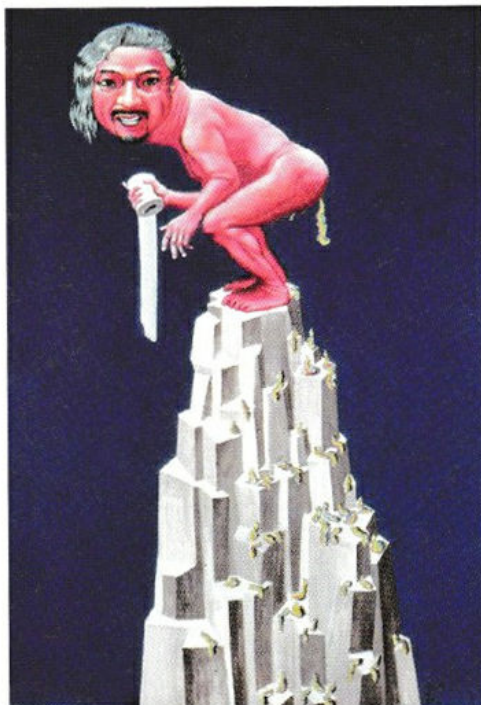
품이었다. 작품을 쳐다보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가 그대로 부딪혀 온다. 최장호 사장님이 작가의 양평 작업실에서 아주 오래 전(1990년 여름)에 가져 왔던 작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그림인 '새' 역시 최장호 사장님이 작가로부터 1990년에 받아온 드로잉이다. 제작년도 표기가 1990년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림을 1990년에 가져오면서 1990으로 적었을 뿐, 실제 제작은 1980년대 중반이라고 한다(최장호 사장님의 진술, 그림은 붉은색이고 서명은 검은색으로 둘의 색이 서로 다르다). '화살 맞은 새(1986)'의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에스키스로 보이는데, 새를 그린 1980년대 중반의 몇몇 작품들처럼, 위태롭고 처연해 보이는 화면 위로 영락(零落)하는 존재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잘 드러나 있다. 몇 개의 선들과 선들의 비백(飛白)으로 이러한 기분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기량이 자못 돋보이는 그림이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새' 역시 1985년에 제작한 다른 동명(同名)의 대작이 남아 있어, 이



외치고 싶은 새
18 X 13cm 종이 위에 펜, 색연필 1985

계열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에스키스적 요소의 작품으로 보이는데, 목이 졸려 죽어가면서 마지막 일성(一聲)을 짜내듯 토해내는 모습에선 처절함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위의 새가 처연함을 잘 보여준다면, 이 '외치고 싶은 새'는 처절함을 잘 보여주는데, 이 시기의 시대적, 개인사적 흐름 모두가 이러한 작품의 분위기 조성이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가의 동
97 X 194cm 천 위에 아크릴 1999



화실풍경
109.5 X 79.5cm 종이 위에 색연필, 파스텔, 콘테 1984



꽃밭에서 2
194 X 130.5cm 천 위에 아크릴 1999

안창홍 安昌鴻

[가족사진]

[인간 이후]

[안창홍의 얼굴]

[새]

[외치고 싶은 새]

갤러리 604의 전창래(田昌來) 대표와 함께 2007년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시 사용하고 있던 화가의 폐이자촌(費家村) 작업실에 들렀던 기억이 난다. 작업실 안에는 흑백의 톤으로 사람을 그린 대작 한 점이 놓여 있었는데, 색채에 무게감이 있어 보는 사람을 압도케 하는 회화적 역량이 돋보였고, 아이디어적이라거나 기교적이라기보다는 묵직한 가운데 자신의 미술적 핵심을 드러내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안창홍 화백의 전체 작업 중에서 '가족사진', '위험한 놀이', '불사조' 등으로 대변되는 1980년대 초, 중반기의 작업, 그 중에도 특히 색연필 작업들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한다. 그 이후의 작품들보다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요소는 약간 덜 하다 할지라도 상황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의 밀도가 짙을 뿐 아니라, 처연하고 진한 기운이 강렬하게 풍겨 나오는 느낌이 제작에 임하는 작가의 진정성을 은연(隱然)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작업들은 작가가 처해진 현실의 긴박함을 심정적으로 절실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 이었고, 작가 내면의 자아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되는 느낌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가슴에 와 닿았다.

김 경, 김종식, 송혜수, 양달석 화백 등의 경우처럼, 내가 수년간 부산에 있었던 까닭으로 화가의 작품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초기 드로잉들은 부산에서 작업하던 시기의 것들이라 아직도 이쪽 지역에 더러 산재해 있다. 소개하는 작품 대부분은 과거 최장호 갤러리의 최장호(崔長鎬) 사장님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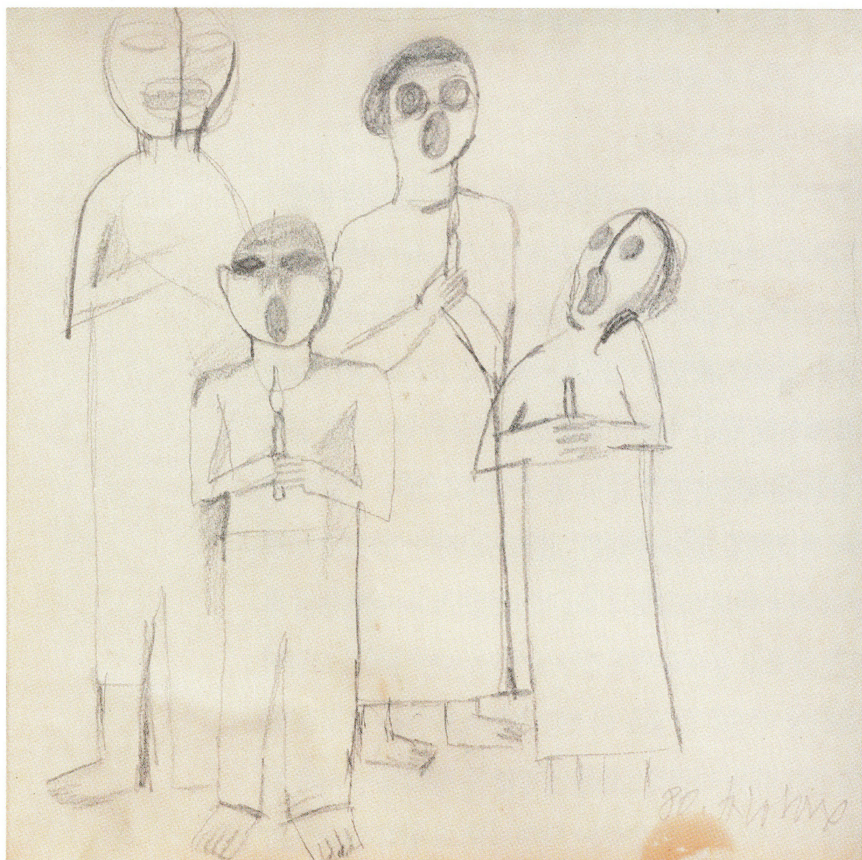
연필화 '가족사진'은 1980년대 초에 제작한 '가족사진' 연작들의 에스키스 중 한 점으로 보인다. 까칠한 연필 선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처럼 보이는 네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눈과 입에 구멍이 나 있고, 얼굴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평화로운 가족들의 모임이 아닌, 절규하는 듯한, 그러면서 외표(外表)는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왜곡, 변형된 모습을 하고 있어,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출은 작가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을 보여주려는 나름의 극화(劇化, dramatization)일 것이다. 유화로 제작된 '가족사진' 연작은 무채색 톤으로 인해 건조한 느낌이 강한 반면, 연필로 그린 이 작품에서는 훨씬 더 표현적인 느낌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얼굴 표현은 나중에 나타나는 가면처럼 보이는 안창홍의 작업 속 인물의 얼굴들과도 유사한 외양을 보여주고



가족사진
162.2 X 130.3cm 천 위에 유채 1980

있으며, 비슷하게 묘사한 나머지 세 명의 얼굴과 차이를 보여주려는 일종의 변주로 인식되었다. 비슷한 세 명 중에서도 딸의 얼굴에는 세로로 선이 나 있어 아버지의 얼굴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 에스키스 화면 안의 사람들은 '가족사진' 시리즈의 본격적인 작품들에서와는 달리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본 작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구성을 시도해 보았다는 증좌(證左)가 되기도 한다. 작가들의 태생은 본 작업(work)이 완성될 때까지 이리저리 다양하게 시도했던 작업 구상의 흔적과 편린을 보여준다



가족사진
17.9 X 18cm 종이 위에 연필 1980